

# 용어의 동음이의어의 설정 기준에 대하여

##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이희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사전에 올림말을 어떻게 내세우는가 하는 거시 구조와 관련한 문제 중에 기준 사전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동음이의어의 처리 태도이다. 꼴 같은 낱말들이 여럿이 있을 때 이들을 사전에서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사전들 간에는 물론이고 같은 사전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이 혼란스럽게 기술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사전 편찬자들의 현학적인 이론 논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전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이란 한 나라의 말을 보전하고 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보기 쉽게 언어 생활의 편이를 제공하고 그 나라의 언어 규범을 제시하는 특성을 지니는 만큼 표제어의 선정, 배열에서부터 의미 기술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칙 아래 편찬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기존의 국어사전들 간에 동음이의어와 관련한 표제어의 분할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에 용언이 있다. 국어의 용언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문법적 특성을 나타내고 고유어로 이루어진 것이 많고 또한 단음절어

내지는 길지 않은 음절 수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으므로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많다. 동음이의어를 분할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각 품사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그 품사에 맞게 세부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sup>1)</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번에 간행된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편, 이하 『표준』)의 용언을 중심으로 이들의 동음이의어(homonym)와 다의어(polysemic word)의 처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동음이의어라 함은 ‘개다(이불을), 개다(날씨가), 개다(밀가루를)’와 같이 철자도 같고 발음도 같은 단어들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미가 대응되어 있으면서 이들 의미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단어들의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하 동형이의어(homograph), 동형어, 동음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겠다. 다의어는 기본 의미와 전이 의미들 간의 의미의 유사성을 근간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 대립되는 개념인 단의어(monosemic word)와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동일 형태의 차이 나는 두 의미가 다의(多義) 관계인가 이의(異義) 관계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자못 명백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이 문제의 특성이다.

끝 같은 단어들을 동형어 혹은 다의어로 처리한다 함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드러낸다. ‘당하다’와 ‘못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설명하거나 찾아볼 때 동형어 분할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두 사전의 예를 살펴보자. 『표준국어대사전』은 ‘당(當)’이라는 어근을 설정하거나 부사 ‘못’ 아래에서 ‘당하다’, ‘못하다’라는 부표제어를 하나 세우고 그 아래에서 여타의 설명을 한 경우이고 『연세한국어사전』(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이하 『연세』)은 문법 특성에 따라 나누어 각각 5개, 4개의 표제어로 분할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당하다’, ‘못하다’에 대한 두 사전의 처리를 보인 것이다.

1)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들의 동음이의 및 다의성 처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이희자/이종희(1996)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예: '당하다'의 처리. 『표준』

당<sup>1</sup>(當) '당하다1'의 어근.

당하다<sup>1</sup> ①(동사) ①해를 입거나 놀림을 당하다. 『사기꾼에게 당하다/②③

④⑤⑥이하 5개의 의미 항목 설정.

②(형용사) 사리에 마땅하거나 가능하다. 『그들에게는 결코 당치 않은 일이었다.

(7쪽 건너뛰고 나서 '-당하다2'가 있음)

-당하다<sup>2</sup> (접사) 『거절당하다.

예: '당하다'의 처리. 『연세』

당하다<sup>1</sup> (동사) 고통을 받거나 해를 입다. 『그 사람한테 안 당한 사람이 없다./협박을 당했다.

당하다<sup>2</sup> (동사) 맞서 겨루어서 이겨 내다. 『그의 고집엔 당할 장사가 없다.

당하다<sup>3</sup> (동사) 해당하다. 『그 효과는 십 배에 당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당하다<sup>4</sup> (형용사) 알맞거나 마땅하다.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당하다<sup>5</sup> (접미사) 『감금당하다/매혹당하다.

예: '못하다'의 처리. 『표준』

못<sup>4</sup>(부사)

못하다 ①(동사)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다. 『술을 못하다

②(형용사)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음식맛이 예전보다 못하다.

③(보조 동사) (동사 뒤에 쓰이어) '-지 못하다'. 『말을 잊지 못하다

④(보조 형용사) (형용사 뒤에 쓰이어) '-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예: '못하다'의 처리. 『연세』

못하다<sup>1</sup> (동사) 못 미치게 하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

못하다<sup>2</sup> (형용사) 정도나 수준이 떨어진다. 『아무려면 내가 오빠보다 못하겠어.

못하다<sup>3</sup> (보조 동사) (동사 뒤에 쓰이어) '-지 못하다'. 『일어나지 못했다.

**못하다**<sup>4</sup> (보조 형용사) (형용사 뒤에 쓰이어) '-지 못하다'. 『편찬 못한 마음.

위에 보인 예에서 우선 지적할 것은 '당하다'나 '못하다'와 같이 문법적인 특성이 다른 말들을 풀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동형어로 분할할 것인지 다의어로 기술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듯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조 용언은 그 본질상 본용언을 짝으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말들을 처리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sup>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동형어 분할의 타당성 논의는 문법 특성을 뜻에 반영하여 이를 고려하여 형태를 분할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일관적인 편찬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참고: 2. 1장)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표제어의 배열 방식이다. 『표준』의 경우에 '당하다'가 '당'에 '하다'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당'에 가서 찾고자 하는 단어 '당하다'를 찾아야 한다는 사전편찬자의 생각이 과연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겠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당하다1'을 보고 나서 '당하다2'와의 연계를 생각했을 때, 이 둘은 여러 쪽에 걸쳐 떨어져 있으므로 그 거리에서 오는 부담감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된다.<sup>3)</sup>

동형어 분할과 관련하여 기존 사전의 편찬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될 수 있으면 하나의 표제어로 묶어서 설명하는 사전이 있다.<sup>4)</sup> 이 때의 이점은 첫째, 의미 경계가 모호한 것들을 가르지 않고 설명

2) 참고로 '당하다'에 대한 다른 사전의 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성』은 동사, 형용사, 접미사를 모두 하나로 처리하고, 『신기철』은 동사, 형용사를 합하고 접미사를 분리해 내고, 『한글학회』는 동사, 형용사를 합하면서 접미사를 인정하지 않고, 『조선말』은 동사와 형용사를 분할하고 접미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3) '거(居)하다', '거하다(규모가 크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들을 동형어라 하여 어깨번호를 붙여 하나는 '거(居)'에서 설명하고, '크다'는 뜻을 가진 '거하다'의 경우에는 그 어근이라 하여 쓰이지도 않는 형태인 '거'를 설정하여 이의 부표제어로 '거하다'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제어의 배열은 사전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4) 예를 들어 '잡다'의 경우에 표제어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금성』은 하나의 표제어에 27개의 의미를, 『신기철』은 표제어를 6개로 분할하여 총 26개의 의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품사나 문법 특성이 달라지지만 의미적으로는 서로 통하는 것을 하나의 표제어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어떤 단어가 품사나 문법 특성 등이 달라졌다면 이미 그 사실 자체로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의미와 같은 또다른 기준을 적용시키는 데서 오는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문법적 특성이 다른 단어들을 하나의 표제어로 묶어 놓음으로써 각각에 해당하는 활용 정보와 관련어 정보 등을 주기가 곤란하고, 품사 구분에서부터 의미 설명의 번호 체계를 사용해야 하는 데서 야기되는 편찬상의 문제나 전자사전화했을 때의 데이터 처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될 수 있으면 표제어를 분할하여 설명하는 사안이 있다. 그 이점은 각각에 해당하는 특성과 정보를 살려 기술할 수 있고, 쉽게 찾고자 하는 말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단점은 의미는 일정 부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로 나누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의미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형어로 나누게 되면 일관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제 아래에서 용언의 동형어 분할의 기제로 작용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료와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를, 『한글학회』는 2개로 분할하여 총 23개의 의미를, 『조선말』은 한 개의 표제어에 58개의 의미를, 『이회승』은 5개의 표제어로 분할하여 20개의 의미를, 『연세』는 2개로 분할하여 26개의 의미를, 『표준』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 28개의 의미를 각각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편찬 태도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분할이라든지 동사와 형용사 통용어,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의 단어를 분할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동형어 분할의 분석적 입장과 통합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신기철』은 자동사, 타동사, 보조 용언, 접미사를 모두 나누어 분석적인 입장이고, 『연세』는 ‘자동사+타동사’, 보조 용언, 접미사를 나누고, 『한글학회』와 『조선말』은 ‘자동사+타동사+보조 용언’, 접미사로 나누고, 금성은 ‘자동사+타동사+보조 용언+접미사’를 모두 합하는 통합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Lyons(1977/1983)와 Kempson(1977)의 다의어와 동형어에 대한 상이한 변별 기준 논의와도 통하는 것으로 Lyons는 동형어의 범위를 아주 축소하여 다의어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Kempson은 그 반대이다.

## 2. 용언의 동형어 분할의 원칙

용언의 동형어 분할의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순수 ‘언어 사전’으로서의 가치를 결코 간행된 『연세한국어사전』의 용언을 모두 검토하여<sup>5)</sup> 그 중 이 사전에서 동형어로 분할되어 처리된 용언 300개를<sup>6)</sup> ‘규범 사전’으로서의 가치를 결코 간행된 『표준국어대사전』과 대조, 검토하여 용언의 동형어 분할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 보고, 이에 근거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 원칙과 일관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동형어 분할의 제1원칙은 물론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똑같은 단어에 대응되는 의미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때, 해당 단어들을 동형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의 작업은 동형어 분할이 두 사전 간에 일치하는 것은 의미나 다른 기제에 의거하여 확실히 갈라지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에 예를 들면 ‘개다(날

---

5) 특별히 이 사전을 선택하여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는, 이 사전은 고어와 북한어, 의미 빈도가 낮은 말들을 제외하고 편찬된 사전이므로 현대 국어를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말들을 중심으로 그 동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로 고어로 인한 동형어는 검토에서 제외된다. 둘째로 북한어로 인한 동형어 또한 제외된다.(참고로 김동언(1993)에서는 특별히 남한사전과 북한사전의 동음어 처리에 대해 논하였다.) 셋째로 의미 빈도상 인지도가 낮은 의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스르다’는 ‘역행하다’라는 뜻과 ‘값보다 큰 액수의 돈을 받고 남은 돈을 셈하여 주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이 외에도 ‘풀 따위를 베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러한 쓰임은 그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 단어의 동형성 여부를 따질 때에는 앞의 두 개의 의미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말이다. 참고로 말하면, ‘거스르다’의 앞의 두 의미를 『표준』과 『연세』는 동형어로, 『신기철』 『한글학회』 『이희승』에서는 다의어로 처리했다. ‘드리다’의 경우에 ‘가게문을 드리다’나 ‘바람에 버를 드리다’와 같이 의미 빈도가 낮은 것이나 옛말로서의 ‘드리우다’나 ‘들이다’의 뜻은 고려하지 않았다.

6) 이 중 ‘독주(獨走)하다’/‘독주(獨奏)하다’, ‘유연(柔軟)하다’/‘유연(悠然)하다’/‘유연(油然)하다’와 같이 한자어가 서로 다른 ‘명사+하다’의 형태를 띤 동음의어는 그 어원상 명약관화하므로 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동사 ‘죄다’와 부사 ‘죄다’ 따위가 이루는 동음의어 형태도 논의에서 배제한다. <붙임>에 300개의 목록을 제시했다.

씨가)/개다(밀가루를)/개다(이불을), ‘고르다(동사: 뽑다)/고르다(동사: 가지런하게 하다)/고르다(형용사: 한결같다), ‘고이다(눈에 눈물이)/고이다(무릎에 두 팔을), ‘구르다(굴러가다)/구르다(발로 바닥을), ‘뒤지다(가방을)/뒤지다(뒤떨어지다)’<sup>7)</sup> 따위가 있다.<sup>8)</sup> 그런데 문제는 검토한 300개 가운데 두 사전 간에 동형어 분할의 숫자 면에서 일치하는 것이 약 110개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60%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 요인을 분석해 내어 이를 동형어 분할의 기제로 삼아 좀 더 나은 국어사전의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2.1.** 하나의 동사 형태가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 이를 동형어로 분할하여 기술할 것인지 한 단어의 다의적 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이것이 동형어 분할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당하다’, ‘못하다’를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한 바이다. 요약하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동형어 분할의 타당성 논의는 문법 특성을 뜻에 반영하여 이를 고려하여 형태를 분할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일관적인 편찬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이다.<sup>9)</sup> 이와 관련한 필자의 견해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와 같은 문법 특성의 차이는 명사와 의존 명사(의례적으로 이는 갈라 오고 있음)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동형어로 분할하

7) 동사의 뜻과 예를 일일이 열거하면 장황해지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자질들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보였다.

8) 물론 이들의 배열 순서라든가 하는 것에서는 각 사전의 편찬 원칙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치하는 예를 일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예: 감다, 곱다, 굶다, 깨다, 꺼지다, 꾸다, 끼치다, 낫다, 누르다, 누이다, 달다, 따르다, 말리다, 멀다, 묵다, 묻다, 미치다, 받다, 배다, 벌다, 부르다, 붓다, 비기다, 빨다, 삼다, 세다, 쉬다 등 110개.

9) 참고로 다른 사전들의 이 주제와 관련한 처리 태도를 몇 개의 동사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다’, ‘내다’의 본동사와 보조 동사를 『금성』 『한글학회』 『조선말』은 합했고, 『신기철』 『이희승』은 동형어로 분할했다. 그런데 ‘오다’는 모든 사전에서 다의어로 처리하는 등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다.

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준』에서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쓰이는 형태를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다의적으로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고<sup>10)</sup> 『연세』는 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두 사전의 이러한 편찬 원칙에 따라 동형어 분할이 이루어진 단어들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두 사전 모두 보조 동사로 보는 것들이다. 그런데 『표준』에서 ‘내다’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서의 쓰임을 서로 다른 표제어로 갈라 설명하고 있어서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예 : 가다, 나가다, 나다, 놓다, 달다, 대다, 두다, 드리다, 말다,  
먹다, 바치다, 버리다, 보다, 쌓다, 오다, 주다, 지다, 치우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에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말들의 목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와 같이 10여 개가 넘는 용언에 대해 그것이 본동사이다 보조 동사이다 보조 형용사이다 하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로 상이한 기술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있다’와 ‘계시다’를 『연세』는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로 기술하고 『표준』은 보조 동사 용법만 기술하고 보조 형용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지고 들다’의 ‘들다’를 『표준』은 보조 동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세』는 본동사의 의미 항목으로 처리했다. ‘보다’는 『연세』에서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서의 용법을 기술하는 반면 『표준』에서는 이를 하나의 표제어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보조 형용사(‘비가 왔나 보다, 떠나 버릴까 보다, 추울까 봐’의 ‘보다’를 말함<sup>11)</sup>)로서의 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약아 빠지다’의 ‘빠지다’나 ‘죽을 뻔하다’

10) 보조 동사 ‘버리다, 내다, 쌓다, 빠지다’의 의미를 분석해 내면서 이들의 뜻은 본동사의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확대되어 쓰인다는 논지에 이기동(1976)을 참고하라. 이 외에도 의미의 통합을 주장하는 그는 인지 의미 이론에 근거하여 의미의 공통성을 찾아가는 작업으로 ‘지다’와 ‘맞다’를 가지고 ‘다의성’을 설명한 바 있다.(이기동 1992).

11)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아, -게, -지, -고’를 인정하고 있다.

의 ‘뻔하다’를 『연세』에서는 보조 동사로, 『표준』에서는 보조 형용사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뜻이 비슷한 ‘좁아 터지다’의 ‘터지다’를 『표준』에서는 ‘보조 형용사’로 처리한 데 반해 『연세』에서는 본동사 ‘터지다’의 의미 항목의 하나로 보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이 문제된다. ‘생겨 처먹다’의 ‘처먹다’를 『연세』에서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의 용법을 갈라 설명하고 있는데 『표준』에서는 보조 동사로서의 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싶다’는 『연세』에서는 형용사, 보조 형용사, 접미사로 쓰이는 용법을 동형어로 처리하는 반면, 『표준』에서는 이 모두를 보조 형용사로 기술하고 있다.<sup>12)</sup> ‘하다’에서도 『연세』는 본동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접미사로서의 용법을 갈라 설명하는데 『표준』에서는 동사 ‘하다’에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를 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니하다’와 ‘않다’를 『연세』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기술하고, 『표준』은 ‘않다’를 본동사로서의 용법과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로서의 용법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고, ‘아니하다’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서 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그래서 『연세』에서는 이 어미 뒤에 쓰이는 용언에 한해서 보조 용언으로 인정하여 기술했다. 따라서 문법적 특성이 보조 용언과 같다 할지라도 ‘-나’라든가 ‘-을’까와 같은 어미 뒤에 쓰이는 용언에 대해서는 보조 용언으로 기술하지 않고 본용언의 의미 항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했다.

12) 참고로 ‘싶다’의 다른 사전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금성』은 형용사, 보조 형용사로 『신기철』 『이희승』은 보조 형용사, 접미사로, 『한글학회』는 보조 형용사로 『조선말』은 형용사로 처리하고 있다.

<두 사전에서 '보조용언'으로 언급된 단어 중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 예들>

표제어 \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용례
계시다	1동사+조동, 조형×	1동사, 2조동, 3조형	조동: 기다리고 계신다 조형: 앉아 계셨다
들다	조동	조동×	따지고 들다
보다	1동사+조동, 2조형	1동사, 2조동, 3조형×	조형: 왔나 보다, 같까 보다
빠지다	조형	조동	약아 빠지다
뻘하다	조형	조동	죽을 뻘하다
싶다	1조형+형용사, 접사×	1형용사, 2조형, 3접사	형: 가 볼까 싶다 조형: 가고 싶다 접: 듯싶다
아니하다	1조동, 2조형	1조동, 2조형	조동: 먹지 아니했다 조형: 가깝지 아니하다
않다	1동사+조동+조형	1조동, 2조형, 동사×	동사: 말을 않는다 조동: 가지 않다 조형: 예쁘지 않다
있다	1동사, 2형용사, 3조동, 4조형×	1형용사(+동사), 2조동, 3조형	형용사: '존재하다'의 뜻 동사: '머무르다'의 뜻 조동: 먹고 있다 조형: 앉아 있다
처먹다	1동사, 조동×	1동사, 2조동	생겨 처먹다
터지다	조형	조형×	게을러 터지다
하다	1동사+조동+조형, 2접미	1동사, 2조동, 3조형, 4접미	동사: 이것 좀 해라 조동: 가야 한다 조형: 길도 멀고 하니 접사: 노력하다, 진실하다

(「1, 2, 3」: 동형어 번호를 나타냄, 「×」: 인정하지 않음, 「1동사+조동」: 동사와 보조 동사를 합하여 1개의 표제어로 처리함을 뜻함.)

2.2. 접미 형태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동형어로 분할되는 것들이 있다. 『표준』에서는 ‘맛나다’의 ‘나다’, ‘말씀드리다’의 ‘드리다’를 접미사로 세우고 있는데 『연세』에서는 이들을 각각의 동사의 의미 항목의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는 통일된 문법관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하겠지만 사전 이용자를 위하고, 규범 사전으로서 혹은 언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그 목록들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하다’, ‘만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쓰이는 형태인데 이 꼴로 접미사로도 쓰인다. 그런데 『표준』에서는 접미사로 쓰이는 이 형태를 ‘-직하다’로 올리지 않고 ‘-직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편집상의 실수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과 같은 계열의 다른 접미사, 예를 들면 ‘-롭다’ 같은 경우에는 ‘-롭-’으로 올리지 않고 ‘-다’ 결합꼴로 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연세』에서는 ‘만하다’를 보조 형용사로 다루어 준 반면 『표준』에서는 접미사로서의 ‘만하다’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당하다’, ‘-되다’, ‘-맞다’, ‘-받다’, ‘-지다’, ‘-하다’는 두 사전 모두 접미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쏟살같다, 귀신같다’의 ‘-같다’와 ‘우렁차다, 매몰차다’의 ‘-차다’를 『연세』는 접미사로 기술하는데 『표준』은 이런 용법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고, ‘교육시키다, 등록시키다’의 ‘-시키다’를 『표준』은 접사로 인정하는데 『연세』는 동사 ‘시키다’의 의미 항목으로 설명한다. ‘싶다’는 『연세』의 경우에는 형용사(‘거기에 가 볼까 싶다’의 ‘싶다’), 보조 형용사(‘가고 싶다’의 ‘싶다’), 접미사(‘듯싶다, 성싶다’의 ‘싶다’) 세 개의 동형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사전에서는 ‘접사’로서 대우받는 기능이 다른 사전에서는 의미 항목으로도 기술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다. 『표준』에서 ‘-하다’의 접미사로서의 용법에 ‘듯하다’, ‘뻔하다’와 같이 의존 명사에 붙어 용언을 만드는 용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싶다’의 이와 같은 용법인 ‘듯싶다’, ‘성싶다’의 용법도 접미사로 기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접미 형태를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 동형어의 분할이 크게 달라진다.

2.3. 다음으로 동형어 분할의 기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 단어가 동사, 형용사로 품사를 달리하여 쓰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다’는 동사로서는 ‘자라다(예: 키가 크다), ‘발전하다’의 뜻 정도로 쓰이고, 형용사로서는 ‘덩치가 크다’의 용법을 비롯하여 16개의 의미 항목으로 나뉘어 사용된다.(『연세』의 ‘크다’ 참고) 이와 같이 ‘크다’의 경우에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그 의미가 일대일 대응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련어 또한 사뭇 다르다. 형용사로 쓰이는 ‘크다’는 반대어로 ‘작다’나 ‘적다’가 되는 반면에 동사 ‘크다’는 그렇지가 못하다. 또한 활용형도 ‘크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 ‘큰 덩치’ 따위로 동사, 형용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등 문법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법적 차이점을 뜻에 반영한다면 동형어로 분할할 수 있다. 『연세』에서는 문법적 특성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미 그 기능과 의미, 격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보고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다. 『표준』은 이들을 의미의 유사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다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sup>13)</sup> 어떤 것의 우열을 떠나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표제어를 분할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예에서 ‘설다’와 ‘더하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들은 꼴이 같고 동사, 형용사로 품사를 달리하여 쓰인다고 하여 『표준』은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의미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관련어 따위를 살필 때에도 크게 차이가 난다. ‘더하다1’의 반대말은 ‘빼다’이고 ‘더하다2’의 반대말은 ‘덜하다’로서 판이하게 다르고, ‘설다1’의 반대말은 동사 ‘익다’이고 ‘설다2’의 반대말은 형용사 ‘익다’로서 각각 다르다. 『표준』에서는 ‘익다’의 경우에는 이들의 상이함을 인정하는지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다.

13) 문법 정보로서의 품사 표시가 동형어 분할에 결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참고하라. “품사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표제어로 선택된 언어 요소가 사전에서 기술 대상이 되는 언어에 속하는 단어이며, 그것이 소속되는 품사의 유형을 특징을 짓는 여러 형태, 통사론적 속성을 나누어 갖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홍재성(1886b: 120쪽)

예: '설다'의 처리. 『연세』

**설다**<sup>1</sup>(동사) 음식 따위가 덜 익다. 『밥이 설어서 먹을 수가 없다.

**설다**<sup>2</sup>(형용사) 처음 보든가 하여 서투르다. 『방이 설어서 그러세요?

예: '더하다'의 처리. 『연세』

**더하다**<sup>1</sup>(동사)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

**더하다**<sup>2</sup>(형용사) 비교하여 더 심하다. 많다. 크다. 좋다. 『된장 맛이 한결 더  
하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연세』에서는 동사, 형용사 2개로 『표준』에서는 동사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서 형용사를 설명한 단어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표준』에서는 이러한 통합 원칙에도 불구하고 '길다', '익다' 따위를 동사와 형용사로 갈라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연세』 역시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를 나타내는데, '있다'를 '존재하다'의 뜻일 때는 형용사로 기술하고 '머무르다, 경과하다'의 뜻일 때는 '동사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준』은 '머물다, 다니다, 경과하다, 유지하다'의 뜻으로는 동사로 '존재하다'의 뜻으로는 형용사로 일관성 있게 다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 가물가물하다, 감사하다, 격하다, 굳다, 굶다, 당황하다, 두드러  
지다, 망하다, 무리하다, 밝다, 사치하다, 수긋하다, 승하다, 쫓긋하다,  
친하다.

두 사전 간에 품사가 일치하지 않아 동형어 분할에 차이를 보이는 단어에 '구부러지다, 눅다, 늦다, 부시다, 성숙하다, 자라다' 따위가 있다.

2.4. 의미의 유사성의 유무를 근거로 동형어로 분할하는 것은 편찬자의 주관  
이 개입되는 부분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는 가장 전형적

인 동형어, 다의어의 논란 주제이기도 하다.<sup>14)</sup> 아래에서는 두 사전을 비교했을 때 대표적으로 의미가 달리 분할된 것들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갈라 기술해 보고자 한다.<sup>15)</sup>

2.4.1. 격들도 다르고 의미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들은 동형어로 분할하여야 한다.<sup>16)</sup> 아래의 예에서 의미를 분할하여 동형어로 설명한 것은 『연세』의 경우이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표준』은 이 둘을 합하여 다의적으로 기술했다. ‘가시다’, ‘근사하다’, ‘부치다’, ‘무르다’, ‘끓다’, ‘박다’, ‘걸리다’의 경우는 『연세』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보고, ‘놀다’의 경우에는 의미의 유사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표준』과 같이 다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문법

14) Lyons는 ‘사전학’이라는 챗터에서 사전편찬자에 의해 좌우되는 동음이의어의 판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절대적’ 동음이의어의 판별 기준을 제시할 때에 이 어휘소적 명료성(lexemische Distinktheit, lexemic distinctness)이 서로 다름이 동형어 분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바 있다.(Lyons 1977/1983: 177 쪽). 그 외에도 통사적 등가성, 형태적 동질성을 들고 있다.

15) 논의의 초점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주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하므로 뜻풀이나 용례 따위를 간단하게 신는다. 따라서 의미 항목의 분할이 사전 간에 일치하는 자명한 것들은 제외하고, 한 사전에서는 통합하여 의미를 기술했는데 다른 사전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독립된 단어로 삼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되는 의미 항목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기술하기도 했다. 필자의 ‘사전편찬이론연구’ 강의에서 대학원생들이 상위 빈도의 동사 100개의 동형성 여부와 의미 항목을 국내의 6개 대사전을 중심으로 일일이 비교, 검토하여 격들의 분할 문제라든가 의미 항목의 설정 숫자와 같은 **다의어 처리**의 세부 원칙에 대해 조사, 발표한 바 있는데, 표제어의 수를 결정짓는 거시적인 구조의 문제는 물론이고 각 표제어의 의미 기술과 같은 미시적 구조에서의 사전 간의 차이점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이 커서 그 편차를 좁혀 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절감한 바 있다. 이 문제는 후고를 기약하고 여기서는 일단 접어 두기로 한다.

16) 격들의 상이함을 적극적으로 동형어 분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남기심 1992(‘만들다’), 홍제성, 1986a(‘갈다, 슬다, 새다, 다니다’), 1986b, 1987(‘찾아가다, 찾아오다’), 1989(‘내려가다, 내려오다’), 김현권 1987(‘타다’) 등이 있다. 참고로 『표준』과 『연세』에서는 용언에 격들을 표시함으로써 자, 타동사의 구분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근거한 동형어의 분할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적인 차이점을 강하게 의미에 반영한다면 동형어로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가시다'의 처리. 『연세』

**가시다<sup>1</sup>**(동사)<1이 가시다> 어떤 상태나 기운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다. 『갈증이 가시다.

**가시다<sup>2</sup>**(동사)<1이 2를 가시다> 무엇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다. 『그릇을 물로 가셨다.

예: '근사하다'의 처리. 『연세』

**근사하다<sup>1</sup>**(형용사)<1이 2와 근사하다> 비슷하다. 『이것과 근사하게 만들 수 있다.

**근사하다<sup>2</sup>**(형용사)<1이 근사하다> 아주 그럴 듯하고 좋다. 『그거 생각만 해도 근사한데요.

예: '부치다'의 처리. 『연세』

**부치다<sup>1</sup>**(동사)<1이 2를 3에 부치다>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는다. 『최씨의 의견을 회의에 부쳤다.

**부치다<sup>2</sup>**(동사)<1이 2를 부치다> 농사를 짓다. 『아내는 손바닥만한 땅을 부치며 두 아이를 키워 냈다.

예: '무르다'의 처리. 『연세』

**무르다<sup>1</sup>**(동사)<1이 2를 무르다> 산 물건을 도로 주고 물건을 되찾다 『비행기표를 물렸다.

**무르다<sup>2</sup>**(동사)<1이 (2로) 무르다> 있던 자리에서 뒤로 옮겨 가다. 『여자는 한 걸음 뒤로 무른 뒤 서 있었다.

예: '끓다'의 처리. 『연세』

**끓다<sup>1</sup>**(동사)<1이 끓다> 액체가 뜨거워져 소리를 내며 거품이 솟아오르다. 『쇠고기국이 끓고 있었다.

**끓다**<sup>2</sup>(동사)<1에 2가 끓다> 많이 모여들다. 『해수욕장은 휴가 인파들로 끓고 있었다.』

예: ‘박다’의 처리. 『연세』

**박다**<sup>1</sup>(동사)<1이 2를 (3에) 박다> 꽃히게 하다. 『땅바닥에 기둥을 박았다.』

**박다**<sup>2</sup>(동사)<1이 2를 박다> 재봉틀로 촘촘히 꿰매다. 『재봉틀로 바짓단을 박고 있었다.』

예: ‘걸리다’의 처리. 『연세』

**걸리다**<sup>1</sup>(동사)<1이 2에 걸리다> 매달리다. 『운동장에 만국기가 걸려 있다.』

**걸리다**<sup>2</sup>(동사)<1이 걸리다> 시간이 소요되다. 『밥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예: ‘놀다’의 처리. 『연세』

**놀다**<sup>1</sup>(동사)<1이 놀다> 재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다.』

**놀다**<sup>2</sup>(동사)<1이 2를 놀다> ②웃이나 화투를 가지고 놀이를 하다. 『웃을 놀다.』  
③함부로 하다. 『혜방을 놀았다.』

2.4.2. ‘다지다’, ‘가리다’, ‘누비다’와 같은 예들은 2.4.1의 것들과는 달리 그 형식적인 격들의 모양이 같은 것들로서 사전편찬자의 직관에서 오는 의미의 연관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로 인해 동형어로 나뉘든가 다의적으로 처리되든가 하는 예들이다. 이들은 아래 기술된 각각의 두 개의 의미 사이에 연관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 동형어로 분할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의 예에서 의미를 분할하여 동형어로 설명한 것은 『연세』의 경우이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표준』은 이 둘을 합하여 다의적으로 기술했다.

예: ‘다지다’의 처리. 『연세』

**다지다**<sup>1</sup>(동사) 단단하게 하다 『땅을 다진다.

**다지다**<sup>2</sup>(동사) 칼로 잘게 썰거나 두들기다. 『고기를 다져서 넣는다.

예: ‘가리다’의 처리. 『연세』<sup>17)</sup>

**가리다**<sup>3</sup>(동사)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 내거나 뽑다. 『좋은 작품을 가  
려야 한다.

**가리다**<sup>4</sup>(동사) 빛을 대충 정리하거나 해결하다. 『경운기를 팔아 빛을 가렸다.

예: ‘누비다’의 처리. 『연세』

**누비다**<sup>1</sup>(동사) 이리저리 거리낌없이 다니며 활동하다. 『우리 나라 곳곳을 누  
비고 다녔다.

**누비다**<sup>2</sup>(동사)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펴서 넣고 바느질로 두 겹을 한데 붙  
이다. 『누빈 옷.

다음으로 동형어의 숫자가 많거나 문제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자. 동형어 분할의 숫자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곳에서는 의미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아래 쪽의 사전에서는 동형어로 갈랐을 경우에 그 동형어가 위쪽에 제시한 사전의 몇 번째 동형어의 어떤 의미 항목인지를 왼쪽에 밝혔다. {예: **찍다**<sup>4</sup> (『표준』22)} 그러니까 위쪽에서 한 표제어에 하나 이상의 의미 항목을 제시한 것은 그 항목이 아래쪽의 사전에서는 동형어로 분할되었음을 의미한다.

예: ‘찍다’의 처리. 『표준』

**찍다**<sup>1</sup>(동사) ②물체를 내리치다. 『도끼로 나무를 찍다. ③표 따위에 구멍을  
뚫다. 『기차표를 찍다.

**찍다**<sup>2</sup>(동사) ①②물건의 끝에 가루나 액체 따위를 묻히다. 『펜에 잉크를 찍

17) ‘가리다’<sup>1</sup>(얼굴을 감추다)나 ‘가리다’<sup>2</sup>(구름에 감추어지다)와 같이 두 사전 간에 일치하는 표제어는 논의에서 제외했다.

다. ㉒어떤 대상을 촬영기로 비추어 그 모양을 옮기다. 『사진을 찍다/영화를 찍다.

예: ‘찍다’의 처리. 『연세』

**찍다**<sup>1</sup>(동사) 물체를 내리치거나 처서 끝이 속에 박히게 하다. 『이쭈시개로 은행을 찍어 입에 넣었다./도끼로 큰 나무를 여러 번 찍었다.

**찍다**<sup>2</sup>(동사) 표면에 그 물질이 묻게 하다. 『손가락으로 술을 찍어 탁자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찍다**<sup>3</sup>(동사) 특정한 도구로 눌러 구멍을 뚫다. 『검표원이 기차표를 찍어 주었다. (『표준』1③)

**찍다**<sup>4</sup>(동사) 필름 따위에 옮기다. 『사진을 찍었다/영화를 찍었다. (『표준』2②) ‘사진을 찍다’의 경우는 『연세』와 같이 동형어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표에 구멍을 뚫는 것’은 그 행위에 있어서 유사성을 인정한다면 『표준』과 같이 다의적으로, 그 행위의 결과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연세』와 같이 동형어로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치다’의 처리. 『연세』

**치다**<sup>1</sup>(동사) 바람이 세게 불다. 『비바람이 세차게 쳤다.

**치다**<sup>2</sup>(동사) ①①세게 두드리다. 『책상을 팡하고 쳤다. ⑤누구를 차로 부딪쳤다. 『오토바이는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 ⑩체질을 하다. 『체로 밀가루를 곱게 쳤다.

**치다**<sup>3</sup>(동사) 뿌리거나 붓다. 『조미료를 많이 치면 좋지 않다.

**치다**<sup>4</sup>(동사) ①펴거나 세워서 막다. 『창문에 커튼을 쳤다. ⑨점이나 선을 그리거나 굿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⑩붓으로 묵화를 그린다. 『사군자를 쳤다.

**치다**<sup>5</sup>(동사) 무엇을 계산하다. 『갈비 한 짝 값을 돈으로 쳐서 줬다.

**치다**<sup>6</sup>(동사) 가마니를 짜거나 엮어서 만들다. 『밤이 이숙토록 명석을 쳤다.

**치다**<sup>7</sup>(동사) 새끼를 낳거나 까다. 『개가 새끼를 쳤다.

치다<sup>8</sup>(동사) 땅을 파 내어 물길을 만든다. 『도량을 쳤다.

치다<sup>9</sup>(동사) 무거운 것에 눌리어 상하다. 『토끼가 뒷에 칠 뻔했다.

예: ‘치다’의 처리. 『표준』

치다<sup>1</sup>(동사) 바람이 세게 불다. 『세찬 눈보라가 치다.

치다<sup>2</sup>(동사) 세계 닿거나 부딪게 하다. 『날아오는 공을 치다.

치다<sup>3</sup>(동사) 붓이나 연필 따위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린다. 『밑줄을 치다./사군자를 치다.(『연세』4에 ⑨⑩)

치다<sup>4</sup>(동사) 뿌려서 넣다. 『국에 간장을 치다.

치다<sup>5</sup>(동사) 퍼서 벌이거나 늘어뜨리다. 『창문에 커튼을 쳤다.

치다<sup>6</sup>(동사) 가마니 따위를 틀로 짜다. 『돛자리를 친다.

치다<sup>7</sup>(동사) 새끼를 낳거나 까다. 『개가 새끼를 쳤다.

치다<sup>8</sup>(동사) 불필요하게 쌓인 물건을 파내거나 옮기어 깨끗이 하다. 『도량을 치다.

치다<sup>9</sup>(동사) 누구를 차로 부딪치다. 『오토바이는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연세』2⑤)

치다<sup>10</sup>(동사) 썸을 맞추다. 『그는 내 땅을 평당 만 원 정도로 쳐서…

치다<sup>11</sup>(동사) 체로 흔들어서 곱게 만든다. 『체를 친 고운 밀가루.(『연세』2 ⑬)

치다<sup>13</sup>(동사) ‘치이다1’의 잘못. →치이다1.(『표준』에 어계번호 공지시가 잘못 되어 있음)

치이다<sup>2</sup>(동사) 뒷 따위에 걸리다. 『토끼가 뒷에 치였다.(『연세』9)

‘체로 밀가루를 치다’의 ‘치다’는 동형어로 분할해야 할 것 같고, 『연세』의 ‘치다9’는 ‘치이다’의 잘못이다.(참고: 『표준』의 ‘치이다’2)

예: ‘발다’의 처리. 『연세』

발다<sup>1</sup>(동사) 액체가 바짝 줄어서 말라붙다. 『목이 받으니 물 좀 마셔야겠다.

발다<sup>2</sup>(동사) 액체 따위로 걸려서 물만 받아 내다. 『젓국을 체로 받아 두었다.

발다<sup>3</sup>(형용사) ①①짧다. 『그는 모가지가 받으면서도 몽푹했다. ②숨결이 가쁘고 급하다. 『노인은 받은 숨을 몰아 쉬었다.

②①탐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여색에 발은 사람치고 패가망신하지 않는 사람 못 봤다. ②인색하고 박하다. 『재물에 발은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예: ‘발다’의 처리. 『표준』

**발다**<sup>1</sup>(동사) 액체가 바짝 좋아서 말라붙다. 『목이 발으니 물 좀 마셔야겠다.

**발다**<sup>2</sup>(동사)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술을 발다.

**발다**<sup>3</sup>(형용사) 길이가 매우 짧다. 『발은 다리. (『연세』3에 ①①)

**발다**<sup>4</sup>(형용사) 지나치게 아껴 인색하다. 『돈에 발다. (『연세』3에 ②②)

**발다**<sup>5</sup>(형용사) 어떤 사물에 열중하거나 즐기는 정도가 심하다. 『고기에 발다. (『연세』3에 ②①)

**발다**<sup>6</sup>(형용사) 숨이 가쁘고 급하다. 『발은 숨을 몰아쉬다. (『연세』3에 ①②)

『연세』의 ‘발다3’의 의미 항목으로 세분된 것들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짧고’, ‘급하고’, ‘박하다’이다. 이것들은 모두 일정 부분 기준보다 덜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통성을 존중한다면 다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여색에 발다’에서의 뜻인 ‘지나치다’는 이러한 의미의 추상적 공통성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분할해야 할 것 같다.

예: ‘지르다’의 처리. 『연세』

**지르다**<sup>1</sup>(동사) 소리를 크게 내다. 『소리를 질렀다.

**지르다**<sup>2</sup>(동사) ①힘주어 빠르게 밀어 넣다. 『배를 주먹으로 쿡 질렀다. ②지나가다. 『복도를 질러 계단을 내려갔다.

**지르다**<sup>3</sup>(동사) 불을 붙이다. 『불을 질렀다.

예: ‘지르다’의 처리. 『표준』

**지르다**<sup>1</sup>(동사)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 『들판을 질러 지름길로 갔다.

**지르다**<sup>2</sup>(동사) ①①대상물을 힘껏 건드리다. 『김 관장이 내 옆구리를 냅다 쿡 지르는 바람에...

㉔㉔불을 붙이다. 『논독에 불을 지르다.

**지르다**<sup>3</sup>(동사)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내다. 『괴성을 지르다.

‘지르다’의 경우 『표준』은 『연세』의 ‘지르다2’①과 ‘지르다3’을 합하여 다의적으로 기술하고 ‘들판을 질러’의 ‘지르다’를 독립된 표제어로 처리했는데 ‘엮구리를 지르는 것’과 ‘불을 지르는 것’은 의미의 유사성이 없다고 본다. 한편 『표준』은 『연세』의 ‘지르다2’②를 독립된 표제어로 갈랐는데 이것 역시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지르다’는 4개의 동형어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 ‘눅다’의 처리. 『연세』

**눅다**<sup>1</sup>(형용사) ①딱딱하던 것이 무르다. 『반죽이 너무 눅으니 밀가루 좀 더 넣어라. ②부드러워져 있다. 『준철의 표정이 많이 눅은 듯 싶었다.

**눅다**<sup>2</sup>(형용사) 값이 싸다. 『값이 눅은 걸로 주시오.

예: ‘눅다’의 처리. 『표준』

**눅다**<sup>1</sup> ㉑(동사) ①굳거나 뻣뻣하던 것이 무르거나 부드러워지다. 『봄비에 땅이 눅었다. ②분위기나 기세 따위가 부드러워지다. 『나이가 드니 그의 성질도 눅었다.

㉒(형용사) ①반죽 따위가 무르다. 『밀가루 반죽이 눅다. ②값이나 이자 따위가 싸다. 『대중식당은 음식 값이 눅다.

‘값이 눅다’는 ‘반죽이 눅다’와 의미의 유사성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동형어로 분할되는 것이 옳고, 『연세』의 ‘눅다1’의 의미 항목 ②와 『표준』의 동사의 예들은 같은 것들로서 동사이므로 『연세』에서는 동형어로 동사를 하나 더 분할해야 할 것이다.

예: ‘시다’의 처리. 『연세』

**시다**<sup>1</sup>(형용사) ㉑식초의 맛과 같다. 『포도가 시다.

㉒(동사적으로 쓰이어) 김치 따위가 너무 익어 식초 맛이 나게 되

다. 『베란다에 두면 김치가 빨리 신다.

**시다**<sup>2</sup>(형용사) 뼈마디가 움직이기 거북하게 시큰시큰 아프다. 『조국의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고 싶다.

예: ‘시다’의 처리. 『표준』

**시다**<sup>1</sup>(형용사) ㉠맛이 식초와 같다. 『포도가 시다.

㉡뼈마디 따위가 뼈였을 때처럼 거북하게 저리다. 『발목이 시다.

‘맛이 신’ 것과 ‘뼈가 신’ 것을 동형어로 가르지 않을 경우, ‘눈썹이 시다’나 ‘햇빛에 눈이 시다’와 같은 용법을 모두 다의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시다’의 의미 부담량이 커진다. 따라서 『연세』에서와 같이 동형어로 처리하여 여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4.3. 비유적으로 전이되어 쓰이는 의미는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조건에는 물론 단서가 붙을 것이다. 비유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금 편찬자의 직관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에서 ‘꼬이다’는 『표준』에서는 이것의 능동꼴의 유무에 따라 둘을 나눈 것 같은데 다의어의 의미 항목마다에 따른 피, 사동 대응은 불규칙적이므로 이것의 유무가 동형어 분할의 잣대가 될 수 없다. ‘꼬이다’의 본의미 ‘비틀리다’에서 전이된 의미로서의 ‘일이 꼬이다’를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다의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엷히다’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연세』에서 유추 의미를 동형어로 분할한 데 반해 『표준』에서는 이를 다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 ‘꼬이다’의 처리. 『연세』

**꼬이다**<sup>1</sup>(동사) ①비틀리다, 꼬이저다. 『진수의 몸이 모로 잔뜩 꼬였다./살이 꼬이다. ②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중도에 곤란하게 되다. 『일이 자꾸 꼬여 간다.

예: ‘꼬이다’의 처리. 『표준』

**꼬이다**<sup>1</sup>(동사) 하는 일 따위가 순순히 되지 않고 얽히거나 뒤틀리다. 『일이 복잡하게 꼬이다.

**꼬이다**<sup>2</sup>(동사) ‘꼬다1’의 피동. 『실이 꼬이다.

예: ‘얽히다’의 처리. 『연세』

**얽히다**<sup>1</sup>(동사) 무엇이 다른 장소에 올려 놓이다. 『쟁반 위에 컵이 얽혀 있었다.

**얽히다**<sup>2</sup>(동사)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체하다. 『점심이 얽혔는지 기운이 없었다.

예: ‘얽히다’의 처리. 『표준』

**얽히다**(동사) ①‘얽다’의 피동사. 『머리에 얽힌 화관.

③ = 체하다. 『아침 식사를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곧 얽혔다.

2.4.4. 다음은 의미 분화를 틀리게 하였거나 특정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표제어로 올리지 않아 동형어 분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우선 ‘매다’는 ‘풀어지지 않도록 서로 걸어서 잡아 묶다: 『짚신 끈을 묶었다’나 ‘논이나 밭의 잡풀을 뽑다: 『김을 맨다’에 쓰인다. 그런데 아래의 ‘매다3’은 문제가 있다. 『연세』에서 ‘매다3’으로 설정한 것은 ‘찢찢’과의 제약된 쓰임을 보일 때에나 가능한 단어인데 ‘찢찢매다’를 다시 한 단어로 올리고 있어 ‘매다3’의 설정이 틀렸다. 그런데 『표준』에는 ‘찢찢매다’나 ‘질질매다’를 표제어로 올려 놓고 있는데 이 때의 의미의 ‘매다’에 대한 설명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문제의 ‘매다’는 의미가 분화되어 파생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접미사로 올려 여타의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빌다’를 살펴보자. 『표준』에서는 『연세』의 ‘빌다1’을 ‘빌리다’의 잘못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빌다’의 쓰임을 말뭉치상에서 조사해 보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린다’라는 용례가 1,100만 마디에서 5번 나오는데 모두 ‘빌어’와 함께 쓰인 꼴이다. 1,700만 마디의 용례에서 살펴본 결과, ‘말/말

씀을 빌다'의 꼴이 75번 이상 쓰였고, '표현을 빌다'가 60번 이상 쓰였고, '말을 빌리다'는 40번, '표현을 빌리다'는 20번 출현한다. 말의 사용이 이러한진대 어떤 것이 틀렸다고 해야 할까. 『연세』의 경우에는 말뭉치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든 추상적으로든 물건이 오고갈 때에 한해서 '빌리다'가 쓰인다고 기술한 것이고 '이용하다'의 뜻일 때는 '빌다'가 쓰인다고 기술한 것이다.

예: '매다'의 처리. 『연세』

**매다**<sup>3</sup>(동사) (주로 절절, 찢찢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다. 『찢찢 맨다, 절절 맨다.

예: '빌다', '빌리다'의 처리. 『연세』

**빌다**<sup>1</sup>(동사) 이용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다**<sup>2</sup>(동사) 바라다. 『일이 뜻대로 되시길 빌어요.

**빌리다**(동사) 남의 것을 돌려주기로 하고 잠시 쓰다. 『아줌마한테 돈을 빌렸다.

예: '빌다', '빌리다'의 처리. 『표준』

**빌다**<sup>1</sup>(동사) 간청하다. 『소녀는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

**빌다**<sup>2</sup>(동사) 남의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호소하여 언다. 『이웃에게 양식을 빌다.

**빌다**<sup>3</sup>(동사) '빌리다'의 잘못.

**빌리다**(동사) ①남의 것을 돌려주기로 하고 얼마 동안 쓰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다. ②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 사동사와 피동사는 접사의 동형성으로 인해 그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은데 피동의 접사와 사동의 접사와 같은 문법 형태소를 동음이의 형태로 분할했으면 그 파생어인 피동사와 사동사도 동형어로 분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리다'는 '부르다(노래를)'의 피동사, '분다'의 사동사, '부르다(배가)'의 사동사, '불다'의 피동사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모두 동형어를 이룬다. 이 형태

들을 『연세』와 『표준』에서는 일관성 있게 각각을 동형어로 처리한 반면, 다른 사전에서는 다의어로 처리하거나 이러한 형태에 대한 편찬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이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8)</sup> 피사동꼴이 같아서 생기는 동형어에는 ‘빨리다, 씻기다, 안기다, 갈리다, 들리다, 잡히다’ 따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다’의 사동사 ‘재우다1’와 ‘재다(『고기』를 양념에 재운다)’의 본말로서의 ‘재우다2’도 이를 이루고 있는 문법 형태소의 특성이 다르므로 물론 동형어로 분할된다.

2.6. 파생 용언의 경우 그 어근의 동형성 여부에 따라 동형어 분할이 이루어진다. 부사 어근에 ‘-거리다’, ‘-대다’, ‘-하다’ 따위가 붙어 파생된 용언류의 경우에, 그 어근이 되는 부사 자체가 동형성을 가지면 거기서 파생되는 동사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근이 되는 부사와 파생 동사 사이의 동형어 분할에 일관성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비쭈하다’는 ‘입술을 내밀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과 ‘물체의 끝이 쭈 나오게 내밀어 있다’라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들의 동형성은 그 어근인 부사 ‘비쭈’ 자체가 동형어로 분할되어 쓰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두 사전 모두에서 부사와 파생 용언 각각을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동형어가 분할된 예에 ‘쟁쟁하다(소리가 쟁쟁하다, 빛이 쟁쟁하다), ‘쟁쟁’(소리가 쟁쟁 울린다), ‘햇볕이 쟁쟁 내리쬐다), ‘딱딱거리다’ 따위가 있다. 그런데 ‘비쭈하다’와 같은 예인 ‘쫑긋하다’는 ‘귀를 쫑긋하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과 ‘귀가 삐죽하다’라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부사 ‘쫑긋’이나 그의 파생 용언 ‘쫑긋하다’도 다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두 사전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듬거리다’는 ‘말을 더듬거리다’와 ‘벽을 더듬거리다’로 쓰이는데 이와 관

18) ‘씻기다’, ‘안기다’, ‘업히다’를 예를 들어 각 사전의 동형어 분할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성』 『신기철』 『한글학회』 『조선말』 『이희승』에서는 모두 피동사와 사동사를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 중 『이희승』에서는 ‘업히다’를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기철』에서는 ‘잡히다’를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어 한 사전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런하여 ‘더듬다’와 ‘더듬더듬’의 처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표준』에서는 세 경우를 모두 다의적으로 설명하여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연세』는 ‘더듬거리다’와 ‘더듬더듬’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동형어로 보면서 ‘더듬다’는 다의적으로 처리하여 일관성이 없다.

어근이라는 주제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에 ‘껴들다’가 있다. ‘끼다’가 동형어로 분할되었으면 이것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단어 ‘껴들다’도 동형어로 분할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표준』에서는 ‘끼다’는 ‘끼우다’의 준말과 ‘끼이다’의 준말을 동형어로 분리했으면서 ‘껴들다’는 ‘끼여들다’의 준말로 쓰이는 것과 ‘겨드랑이에 끼서 들다’를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2.7.** 준말 여부를 검토하여 동형어 분할의 기재로 삼을 수 있다. ‘걷다’는 ‘걸어 다니다’와 ‘소매를 걷다, 말아올리다’의 용법과 뜻으로 각각 쓰인다. 그런데 ‘빨래를 걷다’, ‘곡식을 걷다’, ‘회비를 걷다’의 ‘걷다’는 ‘거두다’의 준말로서 앞의 두 의미와는 준말의 대응 면에서 다름을 알 수 있다. 『표준』에서는 이를 분할하여 동형어로 삼은 데 반해 『연세』에서는 이 의미를 ‘소매를 걷다’의 다의어로 처리하여 문제가 된다. ‘채다’는 ‘알아차리다(예: 눈치를 채다)’와 ‘빼앗다(예: 먹이를 채 가다)’의 뜻으로 각각 쓰인다. 이 외에 ‘돌맹이가 밟에 찬다, 말발굽에 채어 아프다’에 쓰인 ‘채다’는 ‘차이다’의 준말로서 위의 두 ‘채다’와는 다른 단어로 설정될 근거가 된다. 『표준』에서는 이를 동형어로 처리해 준 데 반해 빈도수가 높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연세』에서는 놓치고 있다. ‘메다’의 경우에도 ‘막히다(굴뚝이 메었다)’, ‘올려 놓다(카메라를 어깨에 메다)’ 외에도 ‘메우다’의 준말(통에 테를 메다)로서의 용법을 각각 동형어로 처리할 수 있다.

**2.8.** ‘가르치다’는 ‘깨닫게 하다(예: 글을 가르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과 ‘가리키다’의 잘못으로 쓰이는 형태로 인하여 동형어를 갖는다. ‘가르키다’ 역시 각각 ‘가리키다’의 잘못과 ‘가르치다’의 잘못으로 인해 동형어를 갖는다. 그

런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형태가 같지만 각기 다른 말을 뜻하므로 비록 어떤 말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동형어로 분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표준』에서는 한 표제어 아래에서 각각 원번호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이다. ‘추켜올리다’는 ‘추켜서 위로 올리다(예: 허리를 추켜올리다)’와 ‘추어올리다(칭찬하다)’의 비표준어로 쓰이는 것이 동형어를 이루는데 이 때에도 『표준』에서는 한 표제어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각각의 표제어를 설정하여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연세』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예들을 각각의 표제어를 설정하여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듯 잘못된 쓰임으로 말미암아 동형어를 형성하는 말들에는 ‘놀래다’(‘놀라게 하다’와 ‘놀라다’의 잘못), ‘들리다’(‘들다’의 피동형, 사동형 따위 6개의 동형어 외에 ‘들르다’의 잘못), ‘메다’(‘올려 놓다’ ‘메이다’의 잘못), ‘바래다’(‘색이 바래다’와 ‘바라다’의 잘못) 따위가 있다.

잘못된 말에 대한 견해가 두 사전 간에 일치하지 않아 야기된 동형어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에이다’를 『연세』는 ‘에다’의 본디말로 『표준』은 ‘에다’의 잘못으로 처리한다. ‘지새다’를 『연세』는 ‘지새우다’의 준말로 『표준』은 ‘지새다’의 잘못으로 처리한다. ‘채이다’를 『연세』는 ‘채다’의 피동으로(예: 호랑이에게 뒷덜미를 채였다) 『표준』에서는 ‘차이다’의 잘못으로 처리한다. ‘키다’를 『연세』는 ‘불을 켜다’의 잘못으로 『표준』에서는 ‘켜다’의 방언으로 기술한다. ‘피다’를 『연세』는 ‘담배를 피우다’에서의 ‘피우다’의 준말로 『표준』에서는 ‘피우다’의 잘못으로 기술한다. 이와 같은 견해차는 『연세』의 경우에는 말뭉치를 근거로 실제의 언어의 쓰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술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표준』의 경우는 ‘규범 사전’으로서의 성격상 엄밀하게 옳고 그른 쓰임에 대한 판단을 내려 줘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견해차를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4.4에서 ‘빌다’와 ‘빌리다’의 관계에서 알아본 것처럼 말뭉치상의 쓰임의 양상과 숫자적인 통계 따위를 고려하여 잘못된 쓰임이라고 규정한 것이 언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면 재고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2.9. 순전히 의미에만 기대어 ‘꼴 같은 두 낱말이 동형어다, 한 단어의 다의어다’ 하고 논란을 할 때 몇몇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관련어도 동형어 분할의 기재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끓다’는 ‘국이 끓다’와 ‘사람들이 모여들다’의 용법이 있는데 『연세』는 이를 가르고 『표준』은 합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때 후자의 관련어는 ‘우글거리다, 들끓다’이지만 ‘국이 끓는’ 것에는 이러한 관련어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의미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반대말도 보조 기재로 사용할 수 있다. ‘늦다’가 동사(약속 시간에 늦는다)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만 그 반대말이 ‘이르다, 빠르다’이다. 활용꼴의 제약도 동형어로 가르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하다’를 『연세』는 ‘대한, 대하여’로 그 활용이 제약되어 쓰이는 ‘에 대한’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과 ‘마주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를 갈랐는데 『표준』은 ‘대13’에서 부표제어 ‘대하다’의 다의적인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때에는 의미로도 차이가 나지만 활용형으로도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므로 이를 동형어 분할의 보조적인 기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그 외에도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어원을 살펴 동형어 분할의 기재로 삼을 수 있다.<sup>20)</sup>

### 3. 맺는 말

최근 들어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에 구심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하여 그 학문적 결과가 보다

19)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다니다’를 분할하지는 주장도 있다. ‘다니다’는 첫째 활용형에 제약이 없는 ‘왕복 이동 또는 반복적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다녀오다, 다니러 가다’의 결합 구조에서나 쓰이는 활용이 불구적인 ‘일회적인, 단기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론적 불구성을 고려하여 표제어를 분리시키자는 주장이다.(홍재성 1986a: 78f.)

20) 동형어 분할의 기재로 어원 분석을 통한 통시적 접근에 김병균(1996)을 참고하라.

나은 국어사전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나라에서 출판되는 사전에서 품사에서부터 동형어 분할까지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국어학의 학문적 위상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사전을 찾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편차를 좁혀 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간행된 『표준국어대사전』을 용언의 동음이의어 처리라는 주제로 초점을 좁혀 살펴보았다. 그 방법으로는 의미 빈도가 높은 용언을 중심으로 편찬된 『연세한국어사전』의 용언을 모두 검토하여 동형어로 분할된 것들 300개를 『표준국어대사전』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반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 내고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그 편차를 좁혀 갈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언의 동형어 분할의 원칙을 세워 보고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동형어 분할의 기재로서 우선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의미를 중심으로 한 것을 살펴보았고,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에서는 용언의 본질적 특성인 격들의 다름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비유적으로 전이되어 쓰이는 의미의 상이성은 그 기재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각각 적용된다기보다는 사전 편찬자의 직관에다가 의미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 기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형어 분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의미에 의거한 『표준』의 동형어 분할 처리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 통합적이어서 이 기준의 주관성 시비를 절감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문법 특성을 그 기재로 삼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풀이 같은 경우, 둘째 하나의 단어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경우, 셋째 하나의 단어가 용언으로도 쓰이고 접사로도 쓰이는 경우를 살펴, 이러한 문법 특성을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으로 인정하여 동형어로 분할하는 사전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 기준에서의 『표준』의 동형어 분할 처리 태도는 일관성이 있었으며 앞의 두 경우는 가르지 않고 세 번째 것은 동형어 분할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사동사와 피동사가 풀이

같이 생기는 동형어 문제, 파생 용언의 경우에 그 어근의 동형성 여부로 인해 동형어가 생기는 것, 준말과 잘못된 쓰임 따위로 인한 동형어 설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기준들에 의거한 『표준』의 동형어 분할 태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남기심(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국어 어문 규정집』(1989).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김동언(1993). 「국어사전의 올림말과 동음어」. 『국어를 위한 언어학』. 김동언 편. 태학사.  
김병균(1996). 『국어 동음이의어 연구』. 이회출판사.  
김현권(1987). 「언어사전 정의의 유형과 문법 문제」. 『한글』196호. 한글학회.  
남기심(1992). 「표제어의 풀이와 표제어 설정의 문제」 『새국어생활』2-1.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찬학연구』1집(1987).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 탑출판사  
『사전편찬학연구』2집(1988).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 탑출판사  
양태식(1983). 「의미소의 관련 구조」. 『한글』181.  
이기동(1976). 「조동사의 의미 분석」. 『문법연구』3. 탑출판사.  
이기동(1992). 「다의 구분과 순서의 문제」. 『새국어생활』2-1. 국립국어연구원.  
이희자/이종희(1996) 「어미형태류의 동음이의 및 다의성 처리 문제 —어미·조사·의 한국어 사전 편찬 연구Ⅱ—」. 『국어 문법의 탐구 Ⅲ』. <남기심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최창렬(1986). 『우리말 어원 연구』. 일지사.  
홍재성(1986a).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국어생활』7. 국립국어연구원.  
홍재성(1986b).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정보」. 『어학연구』23-1. 서울대 어학연구소.

- 홍재성(1987). 「한국어 사전에서의 다의어 처리와 동형어 처리의 선택 -‘찾아가다/찾아오다’의 경우. 『동방학지』54, 55, 56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 홍재성(1988).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사전편찬학연구』1집. 탑출판사.
- 홍재성(1989). 「한국어 사전에서의 동사 항목의 기술과 통사 정보. 『사전편찬학연구』2집. 탑출판사.
- 홍재성(1998). 「동사·형용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8-1. 국립국어연구원.
- 홍재성(1989). 「내려가다/내려오다와 그 사전적 처리. 『애산학보』7. 연세대, 애산학회.
- Kempson, R. M.(1977). 『Semantic Theory』. 허광일 외 역. 『의미론』. 한신문화사.
- Lyons, John(1977/1983). 『Semantik, Band I, II』. Beck'sche Elementarbücher Verlag.
- Schwarze, Christoph/Wunderlich, Dieter (Hrsg.)(1985). 『Handbuch der Lexikologie』. athenäum.

### 〈사 전〉

- 『국어대사전』(1991).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금성출판사.
- 『국어대사전』(1989). 이희승 편. 민중서림.
- 『새우리말 큰사전』(1989). 신기철·신용철 편. 삼성출판사.
- 『연세한국어사전』(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두산동아.
- 『우리말 큰사전』(1992). 한글학회 편.
-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편. 두산동아.
- 『조선말대사전』(198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1997). 홍재성 외 편. 탑출판사.

〈본문 약어〉

- 『금성』 : 『국어대사전』(1991).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금성출판사.  
『신기철』 : 『새우리말 큰사전』(1989). 신기철·신용철 편. 삼성출판사.  
『연세』 : 『연세한국어사전』(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두산동아.  
『이희승』 : 『국어대사전』(1989). 이희승 편. 민중서림.  
『조선말』 :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출판사.  
『표준』 :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편. 두산동아.  
『한글학회』 : 『우리말 큰사전』(1992). 한글학회 편.

## 붙임 : &lt;동형어 분석 대상 용언 목록 : 300개&gt;

가다	굽다	늦다	떨다
가려지다	굽다	다지다	떨리다
가르치다	궁금하다	닥치다	떨치다
가르키다	그을리다	땀다	뜨다
가름하다	근사하다	땀이다	뜯기다
가리다	긋다	닫다	띄다
가리키다	길다	달다	띄우다
가물가물하다	깨다	달리다	마르다
가시다	깨우치다	담다	마치다
가열하다	깨치다	당하다	만들다
가하다	꺼지다	당황하다	만하다
간하다	꺼들다	대다	말다
갈다	꼬이다	대하다	말리다
갈리다	피다	더듬거리다	망하다
감기다	꾸다	더하다	맞다
감다	꿨리다	덜렁거리다	맞히다
감사하다	꿨다	덮어쓰다	말다
감치다	끼다	돌다	매다
강하다	끼우다	돌리다	맺다
갈다	끼이다	되다	먹다
개다	끼치다	되물리다	멀다
거르다	나가다	되지르다	메다
거스르다	나다	두다	메이다
거하다	날리다	두드러지다	모자라다
건다	нат	들리다	못하다
걸다	내다	뒤지다	무르다
걸리다	내보이다	드리다	무리하다
격하다	놀다	듣다	묵다
계시다	놀래다	들다	문다
고이다	놀리다	들리다	묻히다
끓다	농다	들이다	물다
끓리다	누르다	들이치다	물리다
굽다	누비다	따르다	미치다
괴다	누이다	딱딱거리다	바래다
구르다	눅다	떠나가다	바르다
굳다	느끼다	떠들다	바치다

박다	설치다	이기다	짜다
받다	성숙하다	이다	짱짱하다
밝다	세다	이르다	짱하다
발다	쇠다	익다	종긋하다
배다	수긋하다	익히다	찌다
버리다	쉬다	일구다	찍다
벌다	슬다	일다	찍히다
벌리다	승하다	읽히다	차다
벌어지다	시다	있다	채다
병병하다	심심하다	자라다	채우다
보다	싫다	잘름거리다	채이다
보이다	싸다	잠그다	쳐먹다
보하다	싸지르다	잠기다	채하다
봉하다	쌍다	잡다	추다
되다	썰다	잡히다	추켜올리다
부르다	쏘이다	잡다	치다
부리다	쪼다	잡히다	치르다
부시다	쭈시다	잡히다	치우다
부치다	쓰다	재다	치이다
불다	쓰이다	재우다	친하다
불리다	쓸다	적다	켜다
붓다	씻기다	절다	크다
비기다	아니하다	조르다	키다
비쭈하다	안기다	졸다	타다
빌다	않다	졸리다	태우다
빠지다	어리다	주다	터지다
빨다	없히다	지근거리다	튀기다
빨리다	얼리다	지다	튀우다
빼다	없다	지르다	트다
뺨하다	없히다	지리다	틀리다
빼치다	업히다	지새다	패다
사치하다	영기다	지우다	폼다
살리다	에이다	지치다	피다
삼다	역하다	지피다	피우다
새기다	열다	직하다	하다
새다	열리다	질금거리다	헐다
서다	오다	질리다	흠치다
서리다	우물거리다	짜다	휘두르다
설다	올다	짜이다	호리다